

‘먹거리 무기화’ 현실 작물보호제 인식 재정립돼야

돈과 바꿀수 있는 현실 못돼, 기술 진보만큼 인식도 발전해야 모두가 유익

수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뜻 깊은 설 명절을 보내고 귀경 길에 오른 우리 일행은 뜻밖의 폭설을 만났다. 도로는 순식간에 빙판길로 변했고 차량은 엉금엉금 거북이걸음으로 일관하며 그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였다. 곳곳에서 대소의 교통사고가 빈발했고 마땅히 쉴 곳을 찾지 못한 귀경객들은 춥고 배고프며 해결하기 어려운 생리적 고통까지 삼중고에 시달려야 했다.

그렇게 열 시간 가량을 공포와 싸운 우리 일행은 천우신조(天佑神助)로 심야에 이르러서야 모 휴게소에 들어섰다. 먼저 생리적 고통부터 해결했다. 그 후 허기를 채우기 위해 편의점을 찾은 일행은 그만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온갖 먹을거리로 가득해야할 공간이 텅텅 비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만 물품이 동이 나고 만 것이다. 그때의 공포감이라니. 참으로 두려웠다. 당장의 배고픔도 문제였지만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의 먹을거리의 중요성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려움은 더욱 크고 무거웠다.

아쉬운 소비자의 인식

최근 들어 언론에 불이 나듯 회자되는 걸 보니 오불관언(吾不關焉)이요 강 건너 불 보듯 했던 ‘식량안보’ 논리가 이제야 피부에 와 닿는 모양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참으로 다행이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가의 식품수요 증가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공급 감소, 금리인하에 따른 자금이 곡물투기로 돌아서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분석되는 ‘애그플레이션’ 공포가 지구촌을 덮고 있다. 농산물 부족과 가격폭등 사태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사람의 먹을거리는 언제 어느 것에도 빼앗길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의 움직임도 긴박하다. 밀 콩 등 주요 작물에 대한 수출 제한조치에 나서거나 관세를 올렸다. 쌀 수출을 금지한 베트남과 인도의 식량단속도 예사롭지 않다. 그럼에도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 세대는 ‘식량안보’ 라는 말을 군사용어 정도로 알고 있다니 격세지감이요 금석지감이다.

따지고 보면 이들만 타할 일도 아니라는 생각

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친환경농법, 유기농법, 친환경유기농법 등 혼란스러운 농법이 마치 멋지거나 모범적인 것처럼 범람하고 있지 않은가? 소비자의 이목은 물론 모든 정책의 초점도 그곳에 모아져 있는 듯 하다. 각종 마트와 백화점의 친환경 유기농산물 코너를 배회함이 마치 부자의 상징이듯 비취지는 모순의 시대다. 작물보호제 농법만 몹쓸 농법인 양 오도되고 있는 셈이다.

과연 95%를 상회하는 관행재배 농산물이 설 곳은 어디인가? 그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은 안정적 먹거리 확보의 최대 공로자다. 정부에서 그들을 따듯이 보호해 주어야 한다. 첨단제품인 작물보호제의 안전사용기준을 지키는 등 올바르게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이 바로 친환경농산물과 다르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일취월장한 작물보호제 기술을 이해할 소비자의 인식이 아쉬운 대목이다.

선입견 보다 '리스크'로 판단해야

농업은 영원불멸의 산업이다. 농업발전을 위한 모든 자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작물보호제 기술 없는 지구촌의 현실을 상상해 보라. 거창하게 세계 식량 운운할 것도 없다. 오비삼척(吾鼻三尺)이다. 식량자급률이 27%에 불과한 나라, 그나마 쌀을 빼고 나면 5% 내외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적어도 먹거리에 대해선 내내 긴장하고 견뎌야 한다. 유비이면 무환이요 거안(居安)때도 사위(思危)라 했다. 응급처방은 처방이 아니다. 속칭 땀뽕일 뿐이다.

비록 작물보호제와는 빙탄(氷炭)의 농법이지만, 먹거리 생산에 차질이 없는 한 굳이 유기농

법이 주창하는 행동자체를 탓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지만, 외국의 저명한 학자는 유기농법을 갖은 용어를 동원하며 혹평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작물보호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전문가들이며 현재의 연구나 기술발전에만 현혹을 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또 보다 과학적이고 보편타당성이 있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작물보호제=위험한 것이라는 달콤한 무기와 선입견을 버리려 하지 않는다. 작물보호제에 관한 사고가 수 십여 년 전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이들의 획일적이고 이기적 사고를 소비자가 깨우쳐주어야 한다. 농작물과 인류는 서로 생존을 의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대다수 농업인을 부정하며 아사멸망의 길을 걸으려는 이들의 환상을 깨뜨려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어우러져야 하지만, 특히 마스크와 과학자의 역할이 매우 과학적이고 명료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과학적근거에 기초해야 한다. 춘몽에 불과한 일시적 자극에 기대어 불필요하게 위험한 정보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문명 이기의 유익성을 한껏 향유하게 해 주어야 한다. 관행재배 농산물이든 유기농산물이든 리스크로서 판단하게 해 주어야 한다. 관행농산물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은 결코 유익하지 않다. 분명 잘못된 것이다. ♪



박 학 순
한국작물보호협회 홍보부장